





## 국제화에 따른 한국내 자생테러 발생 가능성과 대응전략\*

유 형 창\*\*

### 〈요 약〉

테러 조직은 비밀스럽고 점조직으로 전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테러의 불예측성으로 테러대응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자생테러는 자연적으로 생성된 테러리즘으로 테러의 준비, 시행, 효과 등 국내에 국한된 테러리즘이다. 한편 최근들어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자유화의 열기로 인하여 중동, 아프리카의 정치혁명, 유럽의 반사회적 저항, 미국의 월가점령 등 폭력과 과격시위가 가열,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물론 영국, 스페인 등 다수의 국가에서 자생적 테러가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자생적 테러의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의 국제화의 진전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 국내 유입으로 급속하게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어 가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생테러 가능성을 전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한국이 처해 있는 자생테러 환경과 위협을 분석하였다. 자생테러에 대한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인터넷을 통한 자생테러 급진주의 전파 차단
  - 둘째, 테러조직과 잠재 자생테러주의자의 연계 차단
  - 셋째, 정부와 시민, 종교단체간의 자생 테러 예방 협력
  - 넷째, 다문화 사회에 대한 열린 접근
  - 다섯째, 새로운 갈등원인에 대한 체계적 관리
- 마지막으로 자생테러에 대한 장기적 접근이다.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기울리 한다면 국내의 테러 환경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비용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주제어 : 자생테러, 테러리즘, 국제화, 다문화, 불예측성**

\* 이 연구결과물은 2012학년도 경남대학교 학술연구장려금 지원에 의한 것임

\*\* 경남대학교 경호비서학과 교수(주저자)

목 차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서 론</li> <li>II. 이론적 배경</li> <li>III. 한국의 잠재적 자생테러 환경과 위협분석</li> <li>IV. 자생테러 사례연구</li> <li>V. 자생테러에 대한 대응방안</li> <li>VI. 결 론</li> </ul> |
|--|

## I. 서 론

국제화는 '다문화 사회 시대'를 확대하고 촉진하고 있다. 과거 인구의 국제적 이동은 일부 이민국가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지구상 거의 모든 국가로 확대되고 있다(박기덕, 2012: 5). 다문화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타인종 유입에 대한 급격한 문화에의 충격과 다문화 가정의 자녀교육의 문제점, 다문화 가정의 불안정함, 외국인 근로자들의 범죄 집단화, 탈북자들의 정착과정에서의 부정적 요소 등은 한국사회에서의 새로운 범죄 형태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제시를 통하여 최근에 발생한 강력사건 등의 잔인성은 유럽국가에서 보여주고 있는 자국 발생 테러의 모습과는 상이하게 한국만의 독특한 테러의 양상으로 발전 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특별히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테러의 주체, 테러의 객체, 그리고 테러의 수단은 테러리즘의 3대 구성 요소이다. 테러의 주체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테러를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당사자, 즉 테러를 수행하는 테러 조직을 말한다. 테러의 주체는 국가 또는 단체뿐만 아니라 테러를 수행하는 개인도 테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테러의 중요 주체인 테러 조직은 비밀스럽고, 점조직으로 전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과거의 계층적 구조에서 수평적 네트워크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테러 주체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이는 테러의 불예측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테러의 주체, 즉 자생적 테러리스트들이 등장하고 있어 테러대응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 11월 20일 미국적으로 라틴계인 피멘텔(Jose Pimentel)이 뉴욕에서 폭탄테러를 기도한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ABC News, 20 November, 2011). 피멘텔은 알카에다의 영어 웹진 '인스파이어(Inspire)'에 실린 '엄마의 주방에서 폭탄을 만드는 법'이라는 기사를 읽고 혼자서 폭탄 제조법을 공부했다. 그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복귀한 미국 육군과 해병, 라틴계가 많이 사는 뉴욕 북부의 '워싱턴하이츠' 안팎의 우체국, 뉴저지주의 경찰서, 뉴욕 시내 경찰차 등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정보 당국은 그는 홀로 활동하던 알카에다 동조자이며, 올라키(Anwar Awlaki)<sup>1)</sup>의 열렬한 추종자로 '자생적 테러리스트'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자생적 테러리스트(Home Grown Terrorist)는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져 미국 공격을 도모하는 미국인을 뜻한다. 이들은 대부분 조직에 속하지 않고 혼자 활동해 추적이 쉽지 않고, 전과 기록도 대부분 없으며, 시민권·영주권 소지자이기 때문에 중동·북아프리카의 이슬람 국가 국민처럼 미 국토안보부의 '요주의 인물' 명단에 올라 있는 경우도 거의 없다. 이에 따라 사전 예방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도 노르웨이 테러직후 베링 브레이빅(Breivik)과 같은 자생적 단독 테러범에 의한 공격이 미국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Reuters, 16 August, 2011). 문제는 자생적 테러가 미국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은 물론 영국, 스페인 등 다수의 국가에서 자생적 테러가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자생적 테러의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문화적 갈등으로 인한 자생테러의 가능성은 결코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의 국제화의 진전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 국내

1) 올라키는 미국 시민권자로, 뉴욕서 활동하다 예멘으로 옮겨간 알카에다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다. 그는 2009년 1월 알카에다 사우디아라비아 지부와 예멘 지부를 통합해 출범한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 지부(AQAP)의 지도자 중 한 명이다. 1971년 미국 남부 뉴멕시코 주에서 태어난 그는 7세에 예멘으로 건너간 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콜로라도주립대학을 졸업했다. 그는 지난 2009년 12월 25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발생한 여객기 폭탄 테러 미수 사건의 배후 용의자로 지목되기도 했으며 9·11 테러 주범 3명과 연관돼 미국 연방수사국(FBI)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지난 9월 30일 미군의 공습으로 예멘에서 사망했다.

유입으로 급속하게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어 가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생테러 가능성을 전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한국이 처해 있는 자생테러 환경과 위협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영국과 스페인에서 발생한 자생테러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함의도 연구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 II. 이론적 배경

### 1. 다문화주의

1957년 다민족, 다인종 국가인 스위스를 기술할 때 처음 사용된 다문화주의라는 용어는 1960년대 미국의 민권운동을 기폭제로 서구사회에서 이제까지의 국가통합정책이던 동화주의에 대항하는 정책으로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1971년에는 캐나다의 공식적인 사회통합 이념으로 제창되기에 이르렀다(김순석, 2010: 3-4).

그 후 미국, 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 다인종 국가에서 주변적 위치에 있었던 다양한 소수자들과 민족 집단들의 시민 투쟁운동의 논리 또는 이념으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널리 확산되었다. 근래에는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새로운 이주민을 수용하게 된 국가에서 이주문제에 대한 해법의 일환으로 널리 논의되고 있다. 최근에는 구가, 인종, 민족 등 미시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서범석, 2010).

이와 같이 다문화주의는 시대와 장소, 집단에 따라 사용하는 맥락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개념을 특정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오경석(2007: 26)은 다문화주의는 가장 이상적인 방식으로부터 아주 정치적인 규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과 내용으로 규정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승용(2004: 186-187)은 다문화주의가 다루는 주제와 접근방식의 다양성이 다문화주의에 끊임없는 창조성과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정의로 묶어 내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전제하고 있다. 이렇듯 다문화주의를 단순히 한 국가 내에 둘 또는 그 이상의 문화가 동시에 존재하는 현상으로 보는 것으로부터, 다양한 시민권 운동의 목표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국가통합을 이루려는 정책으로, 이러한 정책이나 다문화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국민통합의 이념으로 보는 것 등 실로 사용되고 있다.

서범석(2010: 16-18)은 이러한 여러 논의들을 통해 다문화주의는 다민족 다인종 국가라고 여겨졌던 국가들에서 논의되고 수용되어 왔던 다문화주의가 범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게 된 것은 세계화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다인종 다민족 국가의 국민형성 정책 또는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로서 한 국가 또는 사회 내에서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소수문화도 존중하는 이념을 의미한다.

다문화주의의 이념을 토대로 각국의 타민족의 유입을 통하여 한국가의 구성원의 형태가 변형된 사회를 다문화사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주의란 다문화사회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질적 문화들이 의식적이고 자유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태도와 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문화주의를 채택한 국가들은 국가의 소유가 하나의 특정 민족 집단이 아닌 모든 시민에 있음을 인정하며, 소수집단의 구성원을 배제하거나 주류사회에 일방적으로 동화시키려는 정책을 거부하고(Kymlicka, 2003: 28), 주류집단과 소수집단, 그리고 소수집단 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려는 경향이 있다. 다문화주의는 바로 다문화사회의 갈등구조를 완화하고 공존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일 것이다. 하지만 이질적인 인구와 문화가 공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 사회의 주체들이 새로이 유입된 이질적 문화의 주체인 이주민을 다문화사회의 주체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공존의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갈등의 사회구조는 불가피할 것이다.

## 2. 자생테러

테러와 동의어로 테러리즘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두 용어의 개념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테러란 발생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극도로 불안한 실리적 상태를 말하며 자연적인 현상이다. 반면 테러리즘은 조직적인 폭력을 사용함으로써 복종을 요구하는 것, 특정 정치적 무기나 정책으로서 폭력이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테러와 테러리즘이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테러는 일반적으로 '마음의 상태로써 자연재해, 대형사건 등을 목격하거나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알게 됨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극도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말하는 자연적인 현상임에 비하여 테러리즘은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자행되는 폭력행위로서 폭력 등의 도구를 조직적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강압적 행위이며, 희생자 또는 희생자와 관련된 모든 사람, 그리고 대중들의 의지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 지향적인

행위로서 이를 위해 강제 협박 위협 등의 폭력적 도구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의도적 행위라고 정의된다(오탈근, 2005: 20). 그러나 보통 테러와 테러리즘은 일상용어는 물론 학술용어로서도 구별 없이 혼용되고 있으므로 현재 양자의 구분을 논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대 테러리즘의 특성은 '뉴테러리즘'이라는 용어로 표현되는데, '뉴테러리즘'은 1999년 미국의 민간 연구소 랜드에서 처음 쓰기 시작한 용어로서 종래는 테러리즘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테러리즘을 말하며, 9.11테러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뉴테러리즘은 과거의 테러와 비교해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국가정보원, 2006: 17-18)

국가정보원자료에 따르면 이미 탈레반 등 국제테러단체의 연계세력들이 국내에 잠입해 다문화사회의 구성원으로 위장하여 암암리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2010년 3월29일 비교적 가까운 나라에 속하는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38명의 희생자를 낸 지하철 연쇄테러가 알카에다 연계세력으로 추정되는 자살폭탄 테러범에 의해 발생했다는 보도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를 또 다시 테러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김순석, 2010: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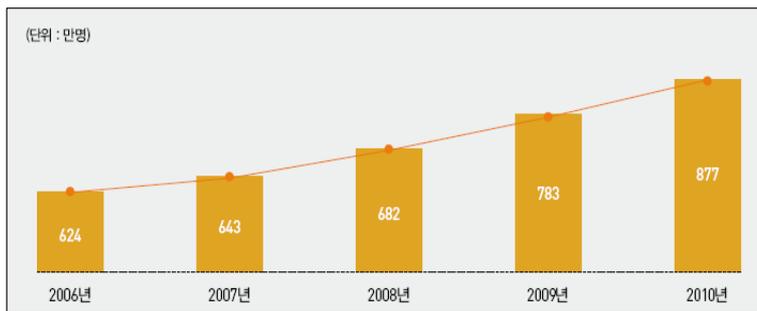
자국 국민 또는 자국 국민들이 조직한 테러집단이 자국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테러를 자행했을 때, 이 테러를 자생테러라 부른다. 자생테러(homegrown terrorism)란 용어는 미국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미국이나 미국의 어떤 소유물 내에서 태어나거나 성장하거나 기반을 갖고 활동하는 어떤 집단이나 개인이 정치적, 사회적 목적들을 위해 미국정부, 미국시민, 또는 그것의 어떤 부분을 위협하거나 강요하기 위해 무력이나 폭력을 사용하거나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전통적으로 한 국가 안에서 발생하는 테러를 지칭하기 위해 국내테러(domestic terrorism)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용어와 뚜렷이 구분되는 현상을 지칭하기 위하여 자생테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전통적인 국내테러가 주로 지역적 쟁점을 중심으로 방화, 암살, 총격이나 사소한 공격의 형태로 나타나는 반면, 최근의 자생테러는 보다 넓은 국가 간 그리고 사회정치적 불만과 관련하여 대량의 인명피해를 가져오는 테러의 형태로 나타난다(박철현, 2010: 62).

### Ⅲ. 한국의 잠재적 자생테러 환경과 위협분석

#### 1. 외국인 체류 증가와 관련된 환경

외국인 체류 증가와 관련된 환경을 알아보기 위하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의 자료(2011)를 참고하고자 한다. 내국인의 출입국자 수의 증가와 함께 외국인의 국내 출입국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입국자 수는 <그림 1>에서와 같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에는 2006년 대비 2백 53만 명 정도가 증가한 8백 77만 명을 기록했다.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2011: 12)

<그림 1> 외국인 입국자 현황

외국인의 출입국자 수가 이처럼 증가하는 이유는 전 세계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에 따른 단순 여행객의 증가, 유학생 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수의 국내 유입이 또 다른 요소가 되고 있다. 2010년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1백 2십 6만 여명으로 2009년 대비 8%(92,938명) 증가했다. 국내 일자리 수요증가에 따라 비전문 취업(E-9)의 수가 증가(17%)하였으며, 외국인 유학생(8%) 및 전문 인력(7%)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 및 구소련지역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 및 영주(F-5) 자격부여 대상 확대 등으로 인하여 재외동포(68%), 영주(103%) 자격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표 1〉 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 현황(2006-2010)

구분 \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체류 외국인	910,149	1,066,273	1,158,866	1,168,477	1,261,415
인구	48,991,779	49,268,928	49,540,367	49,773,145	50,515,666
인구 대비 체류외국인비율	1.86%	2.16%	2.34%	2.35%	2.50%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2011: 264)

‘한강의 기적’으로 지칭되는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 서울올림픽(1988년), 월드컵(2002년)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통해 그 위상을 세계에 알린 국가, 인력난은 가중되지만 고학력의 영향으로 3D 업종에 취업하기를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남아선호사상에 따른 성비의 불균등으로 인한 농촌 총각들의 결혼 곤란 등 한국의 경제적·사회적 요인들이 변수가 되어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외국인 여성들의 한국으로의 유입이 증가하게 되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전국의 공장, 건설현장, 식당, 농장, 어장 등 산업현장에서 한국인이 기피하고 있는 부족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 노동시장에서 필수불가결한 상태이고 그 결과 한국사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했다(설동훈, 2001: 53).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의 올림픽 개최를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1987년, 6,000여 명에 불과하던 외국인 노동자들의 숫자는 급격하게 증가하여 현재 대략 35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 대부분이 단기 체류 자격으로 입국하여 비자가 만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귀국을 하지 않고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크게 등록 외국인 그리고 단기 체류자의 불법체류로 구분할 수 있다. 불법체류자는 2005년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다 2007년 223,464명을 기록한 후 2008년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0: 644).

〈표 2〉 외국인 불법체류자 현황(2006-2010)

연도	구분 총체류자	불법체류자				불체율
		총계	등록	단기	거소	
2006년	910,149	211,988	106,657	103,835	1,496	23.3%
2007년	1,066,273	223,464	107,278	114,295	1,891	21.0%
2008년	1,158,866	200,489	93,461	106,486	542	17.3%
2009년	1,168,477	177,955	83,729	93,613	613	15.2%
2010년 (전년대비증감율)	1,261,415 (8.0%)	168,515 (-5.3%)	78,545 (-6.2%)	89,238 (-4.7%)	732 (19.4%)	13.4%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2011: 645)

등록외국인 불법체류 현황을 보면 2010년 등록외국인이 48,281명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외국인 중 불법체류자는 78,545명으로 2009년 대비 6.2%(5,184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허가제 및 포용적인 동포정책으로 등록외국인 숫자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지속적인 단속활동 및 자진출국 프로그램 시행 등 적극적인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시행한 결과에서 기인한 바 크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0: 648).

단기 불법체류외국인 현황을 보면 2010년도 단기 불법체류외국인은 89,238명으로 2009년 대비 4.7%(4,375명) 감소했다. 이는 2008년부터 불법체류자 감소 5개년 계획에 의거한 지속적인 불법체류자 단속, 2010년 하반기 지문 및 안면인식시스템 도입에 따른 공항만 입국심사 강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평가된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0: 649).

하지만 불법체류자의 체류기간이 2년 이상으로 장기불법체류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2010년도 단기불법체류외국인 89,238명 중 1개월 이내가 961명(1.1%)인 반면 2년 이상은 66,381명(74.4%)에 달한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0: 651).

〈표 3〉 단기 불법 체류외국인 기간별 현황(2006-2010)

연도 \ 기간	총계	1개월 이하	2개월 이하	3개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2년 초과
2006년	103,835	2,436	3,522	3,586	20,363	11,133	62,795
2007년	114,295	1,969	2,733	2,790	24,447	22,124	60,232
2008년	106,486	1,280	1,905	1,863	15,989	23,709	61,740
2009년	93,613	993	1,361	1,149	7,330	15,530	67,250
2010년 (구성비)	89,238 (100.0%)	961 (1.1%)	1,430 (1.6%)	1,397 (1.6%)	11,381 (12.8%)	7,688 (8.6%)	66,381 (74.4%)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2011: 651)

국제결혼의 건수와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2010년도에는 국제결혼 희망 내국인 수요 증가 및 각 국의 국제결혼제도의 정상화 노력에 힘입어 141,654명으로 전년 대비 13.2%의 증가율을 보였다. 국적별 결혼 이민자를 보면 중국 국적 결혼이민자가 47.1%로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 베트남 25%, 일본 7.4%, 필리핀 5.3% 순으로 체류하고 있다. 국제결혼이민자 동향은 1980년 종교단체를 통한 일본여성 입국, 2000년대 초반은 중국 및 필리핀 국적의 결혼이민자 증가, 최근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및 타이 등 국적이 다변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2011: 577).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그리고 국제결혼의 증가가 한국 사회에 던져주는 함의는 무엇일까? 산업현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하지만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은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고학력 국내 인력이 3D 업종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업현장의 노동력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당분간 증가할 수밖에 없다. 물론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한국 정부의 노동정책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의 전면금지하는 한국의 노동시장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사회가 전체 인구의 1%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단순히 생산의 도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들을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정하고 포용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을 의미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증가는 한국의 결혼률 감소 그리고 저(低)출산 문제와도

연관이 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의 높은 교육비와 생활비, 사회적 보육망의 미비, 맞벌이 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 부족 등의 이유로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이들도 늘어나고 있다(한겨레, 2007년 2월 14일).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의 출산을 미루거나 1가정 1인 자녀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결국 한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최단시간 내에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한국의 인구는 줄어들 것이고 절대적 노동력 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국가 간의 노동 경계선이 허물어져 이러한 새로운 노동시장환경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수도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홍원표, 2006: 92).

결혼하는 부부 10쌍 중 1명 이상이 국제결혼을 하고 있다. 농촌 총각이 결혼이민을 희망하는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기도 하고, 한국여성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과 결혼을 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이 되고 있는 국제결혼의 배우자들과 2세 자녀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사회적 갈등의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강휘원, 2006: 6).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겪는 고충의 유형은 다양하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시간(61.1%), 저임금(46.7%), 폭행 및 괴롭힘(22.8%), 임금체불(20.6%), 노동현장의 열악한 환경(20.1%), 한국인 노동자와 비교되는 차별(18.9%), 비인간적인 폭언 및 모욕(17.9%), 산업재해 및 직업병(15.3%), 한국인 노동자와의 갈등(14.9%)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설동훈, 2002: 269-270).

외국인 노동자들이 직면하는 고충 중에서도 이들이 분노의 표출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비인간적인 폭행, 폭언 및 모욕 등이다. 한국에서 노동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미납 월급의 지급, 이유 없는 구타 금지, 노예 같은 부당한 취급의 개선, 인간적인 대우, 충분한 휴식 요구 등 대부분 인권과 관련된 문제들의 해결이다(김운규, 2005: 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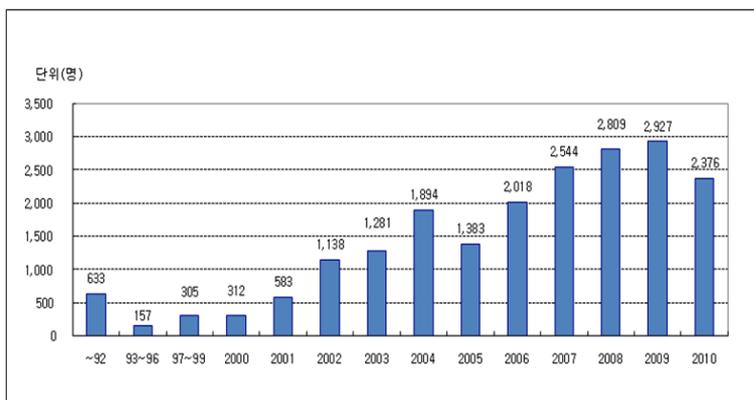
문화적 차이, 생각하는 사고의 차이 등으로 인해 국제결혼이 실패로 끝나는 등 국제결혼 자체가 야기하는 문제도 많지만 국제결혼가정의 2세 자녀들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다. 대구 이주 여성인권상담소가 2006년 이주 여성들과 상담한 결과는 한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국제결혼을 한 이민 여성 50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임신 상태에서 구타당하고 이를 피해 달아나면서 불법 체류자가 되거나, 또는 비정상적인 노동력을 착취당한 것으로 나타났던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2006년 결혼이

민여성의 이혼도 2,444건으로 2004년과 비교해보면 무려 51.7%가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2006년 11월 13일).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편견과 이들에 대한 놀림도 심각한 수준이다. 대니얼 헤니, 하인스 워드, 인순이, 윤수일 등에 대한 국민들의 사랑은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이주 여성들의 경우 한국어의 구사능력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2세들의 한국어 구사능력도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학교생활에 지장을 받기도 한다. 또한 여타의 한국인들과 차이가 나는 피부색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기도 한다. 같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이라도 경제상황이 뛰어나거나 선진국 출신의 백인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영어 등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2세와, 동남아시아 등 저개발국가 출신의 어머니를 둔 2세에 대한 한국 사회의 차별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2. 북한 이탈 주민 증가에 따른 환경

북한 이탈 주민의 국내입국 현황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999년 이전까지 이들 입국자 수가 수십 명 단위 수준으로 미미했다. 그러나 1999년 이후에는 백 명 단위 수준, 2002년 이후에는 천 명 단위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2006년에는 2,000명을 넘어섰고, 2008년에는 가장 많은 2천 8백 9명을 기록했다.



출처 :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그림 2〉 북한 이탈 주민 입국 현황(1992-2010)

2000년부터 2004년 6월 까지 북한에서 탈출하여 한국으로 입국한 4,075명의 탈북 동기를 살펴보면, 생활고가 2,263명으로 전체의 56.5%를 차지하였으며, 북한에서 당을 비판하거나 범죄 행위를 하여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느껴 탈출한 인원이 356명으로 15.7%를 차지하였다. 또한 북한체제에 불만을 품고 탈출한 인원은 367명으로 16.2%였다(양무목, 2004: 16-17). 탈북의 동기가 무엇이든 탈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경제난, 식량난, 그리고 에너지난이 지속되는 한 생활고로 인한 북한 이탈 주민의 증가는 계속될 것이다. 또한 김정일 체제가 지속되는 한 탈북자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북한을 이탈한 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겪는 어려움은 ① 기초지식과 정보의 부재로 인한 곤란, ② 언어 이질화 문제, ③ 생활 및 사고방식의 차이, ④ 문화적 차이로 인한 부적응, ⑤ 남한 주민들 대비 경제적 빈곤감, ⑥ 남한 주민들의 무관심과 경멸, ⑦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한 열등감 등이다(김영수, 2002). 이에 따라 새터민들의 연간 소득은 1,400만원 내외로 남한 근로자의 2,780만원에 비해 절반도 되지 않으며, 실업률도 28%로 한국의 공식 실업률은 3.5%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북한 이탈 주민 자녀들의 고등학교 취학률은 6.6%로 2003년 기준으로 한국의 99.3%와 비교할 때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다(조선일보, 2007년 2월 20일).

새터민들이 위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한국의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다. 그리고 20세 이하 새터민 중 상당수가 무학자 또는 학교 중퇴자이고, 북한을 떠난 이후 제3국 체류기간이 3~5년으로 장기화되면서 학력 결손이 심했기 때문에 학습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새터민들을 동정심과 호기심, 그리고 의심과 불신이 혼재된 감정으로 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새터민 학생들에게 북한말을 억지로 시키거나 따돌리는 행위 등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양무목, 2002: 26).

한국사회가 같은 민족인 새터민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이들을 감싸주지 못한다면 이들은 한국사회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다.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동포들이 남한에서도 고통을 당하고 소박한 꿈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면 좌절할 수밖에 없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느끼는 고통과 같은 민족인 새터민들이 느끼는 고통은 감정적인 차원에서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 이민자 및 그들의 2세, 그리고 새터민들이 한국사회에서 계속 차별을 받아 꿈을 잃고 좌절하게 된다면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

다. 또 한국사회를 혼란 속으로 몰아가려는 불순세력이 이들의 불만을 역이용하여 자신들의 목적달성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국가적,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테러도 한국사회의 불안정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보면 스페인 마드리드 열차 테러와 영국 런던 지하철 테러는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는 크다고 볼 수 있다.

#### IV. 자생테러 사례연구

##### 1. 3.11 스페인 마드리드 열차 테러와 7.7 영국 런던 지하철 테러

스페인 총선거를 3일 앞둔 2004년 3월 11일 오전 6시 39분, 스페인 마드리드 남부 아토차 역의 4개의 교외선 통근열차에서 10개의 폭발물이 연쇄적으로 폭발하여 190여 명이 사망하고 2,000여명이 부상당하는 스페인의 9.11 테러가 발생하였다(연합뉴스, 2004년 3월 14일). 스페인당국은 테러발생 4일 후 실시예정이었던 3월 15일 총선에 대비하여 바스크 분리주의테러조직인 ETA(Euskadi Ta Askatasuna ; Basque Fatherland and Liberty)에 대한 철저한 봉쇄와 수색을 해왔다. 철통같은 스페인경찰의 테러예방수사에도 불구하고 총선 4일전 수도인 마드리드 한 복판에서 경찰을 비웃는 듯한 대규모의 열차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이다(홍순남, 2006: 144).

테러 발생 18일 만에 스페인 경찰은 테러범들의 은신처였던 마드리드 남쪽의 한 아파트에서 테러주모자 23명을 체포했는데, 이들 중 11명이 모로코인 또는 모로코계 스페인 국적의 자국민이며, 인도, 스페인인이 각 2명, 시리아 인이 3명이었다. 그 후에도 스페인 대테러 당국은 총 76명의 테러 혐의자를 체포하여 25명을 테러범으로 구속하였다. 테러범 혹은 테러 혐의자들은 대부분 모로코계로 스페인으로 이주한 이민 2세이거나 모로코인들 이었다. 스페인 정부는 이 들 중 28명을 최종적으로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하였고, 스페인 법원은 2007년 11월에 테러사건의 주범인 모로코인 자말 주잠과 오스만 엘나우이, 스페인인 호세 에밀리오 수아레스 트라스오라스에 대해 각각 살인과 기타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만 4000~4만3000년을 선고했다(CNN 한글뉴스, 2007년 11월 8일; 동아닷컴, 2007년 11월 1일).<sup>2)</sup> 스페인 열차 테러의

2) 스페인 형법은 사형과 종신형을 금지하고 최대 복역기간도 40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실적으로 징역

주된 특징은 국제테러집단에 의한 직접적인 테러가 아니라 자생적 테러법에 의해 연쇄적인 열차 테러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물론 스페인 열차 테러에 외국 국적의 테러주모자가 일부 포함되기는 했지만 테러 자행 핵심 인물이 모로코계로 스페인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테러의 주범인 자말 주감(Jamal Zougam)이 아프간의 알카에다 캠프에서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또 유럽의 알카에다 조직원이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그가 스페인 국적의 사람으로서 스페인 국민을 향해 테러를 가했다는 점일 것이다.

7.7런던지하철 연쇄폭탄폭발사건은 런던올림픽 개최소식과 스코틀랜드의 G8정상 회담으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축제분위기로 영국민이 흥분된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다(홍순남, 2006: 154). 영국의 2012년 올림픽 유치 결정과 스코틀랜드 글렌이글스(Glen Eagles)에서 서방선진국회의(G8)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2005년 7월 7일 오전 아침 출근시간에 지하철과 버스를 대상으로 한 연쇄적인 폭탄테러가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60여 명이 사망하고, 70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연합뉴스, 2005년 7월 7일). 테러범 4명은 폭탄배낭을 메고 킹스 크로스(Kings Cross) 역에 집결하여 공격 목표물을 향해 개별적으로 흩어져 테러를 자행했다. 자폭테러범 4명 모두 파키스탄 계 영국 시민권자이며 테러현장에서 숨졌다.<sup>3)</sup> 영국 경찰은 3곳의 테러 현장에서 테러범의 소지품과 함께 범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들을 발견하였고, CCTV를 통해 테러 전모를 밝혀냈다.

이들은 유기 과산화물로 손수 제작한 폭발물을 등에 지고 있었다. 폭파범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영국정부의 지지를 반대하고 이라크 전쟁에 개입한 영국정부에 대항하는 오사마 빈 라덴을 추종하는 이슬람원리주의자들이었다. 이들의 모습은 런던 시내 곳곳의 CCTV에 녹화되었다. 이들 중 세 명은 폭탄이 든 백팩을 메고 열차에 탑승했고, 한 명은 버스에 탑승했다. 이들에 의한 테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런던에서 발생한 가장 큰 폭발이었고 유럽에서 발생한 최초의 자살테러였다(신승균, 2012: 148).

영국 지하철 테러 역시 종전의 대규모 테러와 달리, 영국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40년 형이다. 따라서 4만 년 징역형 선고는 스페인 국민의 분노를 반영한 상징적 선고로 볼 수 있다.

3) 런던테러 폭파범 중 한명인 모하메드 시디크 칸은 사건 직 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침공 등 영국 정부의 잘못된 중동정책에 대한 보복으로 이번 사건을 저지른다는 유언 비디오가 알자지라 방송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한계례, 2005년 9월 2일). 탄위어의 유언비디오는 런던 테러 발생 일 년 후에 알자지라 방송을 통해 공개되었다(문화일보, 2006년 7월 7일).

자란 이슬람 계 영국인들이 실행한, 자생적 자살폭탄테러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테러범들은 테러자행 전까지는 범죄경력이 전혀 없는 평범한 영국시민이었다. 모하메드 시디크 칸(30)은 빈민층 이민 자녀와 장애아를 돕는 초등학교 보조교사였다. 세흐자드 탄위어(22)는 최고급 승용차인 벤츠를 소유한 성공한 이민가정의 2세였다. 이슬람계이긴 해도 런던시민으로 평범하게 살아왔던 이웃이 알카에다 등 외국 테러조직에 포섭돼 짧은 시간에 테러범으로 돌변한 것이었다.

## 2. 스페인 마드리드 열차 테러와 영국 런던 지하철 테러 분석 및 함의

스페인 마드리드 열차 테러와 런던 지하철 테러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공통된 교훈은 국제적 테러조직이 아니라 자국민이 테러의 주체가 되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무자비한 테러를 자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테러범이나 테러가담자들이 대부분 이민 세대들이고,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피부 색깔과 종교 면에서 유럽토착인과 다를 뿐이었다. 그러나 이들 테러범들이나 테러 가담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된 인식은 토착민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받았던 좌절과 서러움 일 개연성이 매우 높으며, 이에 따라 과격한 이슬람원리주의에 심취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기대와 실제 간의 괴리" 또는 "가치 기대와 가치 능력간의 차이"의 인식에서 발생하는 상대적 박탈감(Relative Deprivation) 또는 좌절감(Frustration)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 심리적 요인이 이들을 테러범으로 몰고 간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Ted R. Gurr, 1970: 18). 즉 그들이 당연히 누려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의 조건과 실제로 그들이 향유하는 현실적 조건 간의 격차로 인해 좌절하고 박탈감을 느끼면서 결국은 사회적 긴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게 된 것이다.

자생적 테러는 테러 목표 국가 안에서 태어나 자란 국적국가의 국민이 테러를 자행하기 때문에 공항이나 항만을 원천봉쇄해도 막을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테러 전력이 없고 자국민이어서 정부 당국에서 테러범 여부를 사전에 알아낸다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전 세계적으로 자생테러가 빈발하고 있다.

〈표 4〉 9.11테러 이후 서구에서 발생한 주요 자생테러 사건

국명	주요 자생테러사건	범인
영국	2001년 12월 American Airline 비행기 폭파미수	개종한 영국인
	2004년 질산암모늄 비료폭발물 600kg을 이용하여 테러를 모의하다가 적발.	무슬림가정에서 자란 영국인, 파키스탄계 영국인들, 알제리계 영국인
	2005년 2건의 자살폭탄테러로 50명 사망, 700명 부상	파키스탄계, 자메이카계, 동아프리카계 영국인
	2006년 적어도 10대의 대서양횡단 비행기에 대한 액체폭탄 테러미수	영국태생의 영국인들(그 중 적어도 3명은 개종함)
	2007년 글래스고우 국제공항의 차량폭탄 테러	4명의 영국인 의사들
	2008명 엑스터의 한 음식점에서의 폭발물 테러	22세의 개종한 영국인
프랑스	2000년, 2001년, 2005년, 2006년 마켓, 지하철, 공항 등에 대한 테러미수	
덴마크	2005년 마호메트를 비하하는 만화를 게재한 신문사와 만화가에 대한 테러미수, 2007년 테러미수	요르단계 이민 2세, 덴마크 출생
	2007년 코펜하겐 폭탄테러 미수	8명 중 6명이 외국태생의 덴마크 국적자
네덜란드	2004년 회교권 남성들을 여성을 고문하는 사람으로 묘사한 다큐멘터리를 만든 영화감독 테오 반 고흐가 출근길에 참수당함	모로코계 이민 2세, 암스테르담 출생
스페인	2004년 마드리드 통근열차 폭탄테러로 192명 사망, 2000여명이 부상	테러범 중 1/3이 스페인 시민권자
독일	2007년 1,500파운드의 과산화수소(런던 폭탄테러에 사용된 물질)를 운반하다가 체포됨	2명이 개종 독일인과 1명의 터키인
이탈리아	2004년 밀란시 지하철에 대한 폭탄테러 미수	이슬람 성직자를 포함한 테러집단
	2007년 테러범 포섭 및 훈련 담당자 검거	
벨기에	2007년 구금된 알카에다 요원을 구출하려다 검거	14명의 벨기에인
	2008년 테러집단에 가입한 사람들 검거	6명의 벨기에 시민권자
스위스	제네바공항에서 이스라엘 민항기에 대한 로켓추진수류탄(RPG) 공격미수	북아프리카계 이민자 7세

출처 : Wilner and Dobouloz(2009); Precht(2007); 박철현(2010) 재인용 정리

스페인, 영국 테러범과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탈북자, 다문화 가정 구성원 등 새로이 한국의 구성원으로 등장한 이들 간에는 일정수준의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김열수, 2007: 10).

첫째, 아프간 및 이라크 전에 참여한 바가 있다는 유사성이 있다. 스페인 및 영국은 이슬람 국가인 이라크 및 아프간에 병력을 파병하였다. 기독교 국가가 이슬람 국가에 들어간 것이다. 한국은 세계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공조의 입장에서 이들 국가에 병력을 파병하였다. 비록 한국이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기독교의 영향력이 상당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슬람원리주의 세력들에게 한국군은 점령군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에는 주한미군이 존재하고 있다.

한국이 이라크에 병력을 파병하고 있을 때, 알카에다의 2인자로 알려진 알 자와히리는 2004년 10월에 알 자지라 방송에 출연하여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미국 동맹들의 시설을 공격하기 위해 지도부를 구성해 조직적인 저항에 나서라고 촉구하기도 했다(연합뉴스, 2004년 10월 12일). 또한 국가정보원은 알카에다 조직원이 지난 10년 사이 두 차례에 걸쳐 한국에 들어온 일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한겨레, 2003년 11월 20일). 스페인과 영국처럼 한국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한국군을 파병했고, 또 주한미군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대형테러가 일어날 수도 있다.

둘째, 이민세대, 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유사성이 있다. 유럽의 각 국가들은 주로 중동이나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의 이민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반면, 한국에는 주로 아시아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다. 영국과 스페인에서 테러를 자행한 테러범들 대부분이 이슬람 계 이민 2세였다.

법무부 출입·외국인 정책본부의 2008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인도네시아 26,076 명, 우즈베키스탄 20,178 명, 파키스탄 10,432 명, 방글라데시 12,941 명 등 이슬람권 출신이 7만 8천여 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 불법 체류자 비율을 보면, 방글라데시는 10,237명, 파키스탄인 4,427명, 우즈베키스탄 8,939 등 3만 4천여 명이 불법체류자로 나타났다. 방글라데시인의 불법체류자 비율은 79.1%로 나타났다.

이들 불법체류 노동자들은 합법적인 법집행 차원에서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고, 강제 출국 조치에 반발하거나,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 대항하는 등 점차 조직화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2007년 10월에 경기 남양주시 마석 가구단지에서 불법체류 신분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호송하던 출입국관리소 차량을 고용주와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마을 주민들이 물리력을 동원하면서 무려 9시간 동안이나 대치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이주 노동자와 내국인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집단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출했다는 점에서 시사적이다.

강제 출국을 당했거나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느끼는 외국인 노동자 출신들이 반한 단체를 결성하고, 테러협박을 한 사례도 있었다.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로 있다가 귀국하여 Anti Korea Interest Agency (AKIA)라는 반한 조직이 태국에서 결성되었다. 이 조직은 태국 주재 한국 대사관을 포함한 주요 기관과 국적 항공기 등을 겨냥해 테러공격을 하겠다는 협박편지(2004.1.8)를 보냈고, 구체적인 테러공격 일자가 명시된 편지(2004.1.16)도 보냈다. 또한 이 조직은 태국의 돈무앙 공항 내 대한항공 사무소에 테러 협박편지(2004.4.23)를 보내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sup>4)</sup>

한국은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남북 대치라는 특수한 환경이 작동하고 있다. 참여 정부가 출범하고 2006년 12월까지 검거된 간첩은 총 17명이었으며, 그 중에는 탈북자 새터민 간첩도 있었다.<sup>5)</sup> 특히, 새터민 간첩은 탈북자로 위장 귀순한 뒤 1년 3개월 동안 국내에서 간첩으로 활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외국인 노동자가 알카에다와 연계될 경우, 그리고 탈북 새터민이 북한의 배후 조종을 받을 경우, 한국도 대형테러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2005년에 발생한 탈북자 손 모씨의 국회 차량 돌진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동년 2월 23일 오후 11시29분께 국회 정문을 향해 탈북자 손 모(41)씨가 시속 40~50km의 속도로 승용차를 몰고 돌진한 사건이 발생했다. 손 모씨는 국회 정문의 입구와 출구 가운데 바리케이드가 세워진 입구를 택하지 않고 장애물이 없는 출구를 통해 국회 안으로 역(逆)진입을 했다. 당시 정문에 경비인원 2명이 있었지만 심야 시간에 갑자기 차량이 들이닥친 데다 워낙 속도가 빨라 국회 진입을 제지하지 못했다. 손 모씨는 휘발유 20리터를 차에 싣고 와 일부를 몸에 뿌린 뒤 라이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다가 결국 경찰에 연행됐다. 이 사건은 탈북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불만을 품고 자행된 것으로 밝혀졌다(동아일보, 2005년 2월 24일).

셋째, 영국,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의 이민 2세대처럼,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와 자녀들, 그리고 새터민들이 한국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 고통과 좌절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한국의 주류 계층에 진입하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가정 출신의 2세 등에 대한 폭언, 폭행, 임금 체불, 무시, 왕따 등의 차별을 지속한다면 이들의 좌절감이 한국인을 분노의 대상으로 삼아 테러를 일으킬 수도 있다.

4) 한국 관련 테러 협박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는 한국테러리즘연구소의 홈페이지([www.terrorism.or.kr](http://www.terrorism.or.kr)) 참고

5) 조선일보가 2006년 12월 12일자 보도한 “간첩 많은데 안 잡았다”라는 기사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이 해명한 국정브리핑 내용 참고

## V. 자생테러에 대한 대응방안

### 1. 인터넷을 통한 자생테러 급진주의 전파 차단

최근 국내에서도 인터넷상에서는 수면 아래 감춰져 있던 ‘제노포비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반다문화주의자들까지 늘고 있는 추세다. 현재 대형 포털 사이트에는 반다문화주의를 표방하는 커뮤니티가 다수 개설된 상태다. 그중 한 카페는 공지사항을 통해 회원들에게 “후진국에서 들어오는 값싼 노동인력이 누구와 경쟁하겠느냐? 바로 힘없고 가난한 우리 서민이다. 가진 자를 위해 ‘저임금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며 ‘외국인들이 일자리를 뺏으러 왔다’는 식으로 반감을 드러낸다. 또 ‘외국인 범죄 사례’ ‘청소년 다문화 세뇌 교육’ ‘외국인 노동자의 정주화’ 등 여러 개의 게시판을 만들어 정부의 다문화 정책과 다문화에 대한 호의적인 기사들을 올려놓고 관련 게시판에 몰려가 반박 글을 올리고 있다.

최근엔 반다문화 글을 일반 인터넷 공간에서조차 쉽게 접할 수 있다. 회원 수 16만 명이 넘는 한 패션 카페에는 ‘보육료 100% 지원에 관광도 무료로 시켜주는 다문화 정책’ ‘다문화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는 제목의 글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개인 블로그와 SNS에서도 인종주의적인 글들이 넘쳐난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생활이 어려운 내국인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으면서 다문화 가정에만 영유아 보육료를 100% 지원하는 등의 정책은 오히려 역차별 아니냐”고 주장하는 등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인터넷은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정보 광장이다. 급진과격주의자들도 테러조직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전략·전술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그들 조직의 이념을 전파하고, 테러범의 충원 및 운영자금의 조달은 물론 테러자행 동영상 공개를 통한 공포의 확산과 반정부 여론 확대 등 효과적인 투쟁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비합법적이고 선량한 대중들에게 위해한 내용을 전파하는 인터넷을 차단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업계와 긴밀한 협조가 요구됨은 물론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국 정부는 테러법 2006(Terrorism Act 2006)을 통해 테러를 조장하는 내용과 테러조직의 선전물을 전파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테러조장

내용에 대한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는 경우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테러조장 콘텐츠 차단을 위해 영국 경찰은 내무부와 함께 대테러 인터넷 조회 부대(Counter Terrorism Internet Referral Unit: CTIRU)를 2010년에 창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CTIRU는 인터넷 콘텐츠의 불법 여부 평가와 차단에 집중하고 있다. 동시에 다른 국가의 사범당국과 협력체계를 통해 구축을 통한 불법 콘텐츠 차단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150개 이상의 테러조장 콘텐츠를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HM Government, 2011: 77-80).

## 2. 테러조직과 잠재 자생테러주의자의 연계 차단

자생테러 중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테러조직이 잠재적 자생 테러주의자들을 이용할 개연성이다. 예를 들면, 알카에다 이데올로기(AI Qaedism)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이 사상이 내포하고 있는 극단적인 폭력우월주의 사상과 사회 전반적으로 널리 다양한 수준으로 쌓여있는 불만, 분노라는 현상이 합류할 가능성과 이 두 현상이 만나게 될 때 발생할지 모를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우려 역시 점차 증대하고 있다. 즉 알카에다의 초국가적인 반체제 사상이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작전지원을 받거나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해 전파된다면 사회적으로 소외된 개인을 알카에다의 대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게 하며 동참을 유도하기가 매우 쉬워질 수 있다. 아울러 급진세력들이 잠재적 자생 테러주의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불만 세력을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조직원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구사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 3. 정부와 시민, 종교단체간의 자생 테러 예방 협력

테러는 물리적 보안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울러 테러행위에 대한 응징만으로는 보복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피로 피를 씻는 결과만 낳을 것이다. 테러행위의 결과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테러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테러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갈등 요소를 완화시키기 위해 정부와 시민, 종교단체 간에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이해 당사자 간에 서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 4. 다문화 사회에 대한 열린 접근

노르웨이 테러를 자행한 브레이빅은 가부장제 특성과 단일문화 전통이 강한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보수주의를 칭찬하면서 유럽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모델 국가로 바라봤다. 그러나 우리도 최근 급속한 다문화 현상을 겪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민, 국내거주 외국인,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을 포함한 재외동포의 국내거주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들은 대부분 중국이나 동남아시아가 많기 때문에 다문화는 가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경제적 차별과 함께 문화적 차별이 섞여 있다.

이민 노동자들에 대한 국내 극우 보수주의자들은 이민자들에 의해 국내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이민자들의 급증으로 사회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 국내 노동자들이 꺼리는 3D업체에 이민자들이 취직하는 상황, 국내인과 이민자들의 범죄건수를 비율로 따지지 않고 단순히 이민자들의 전체 범죄발생 건수만 따지는 통계적 오류가 비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외국인이 결혼, 이민, 유학, 사업 등을 통해 이미 한국 사회구조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는 현실에서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은 사회 통합을 방해하는 적신호이고 향후 통제할 수 없는 폭력을 야기할 수 있는 위기 요인이다(조선일보, 2011년 8월 11일).

세계화시대는 네트워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차이가 각자에게 어떻게 다채롭고 풍부한 삶을 가져다줄지에 대해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데 열중해야 한다. 단순하게 경제적 위기와 일자리 문제를 외국인 노동자나 이민자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한 접근이 아니다.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오늘날 그들을 ‘남’으로 취급하고 그 ‘남’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면 유대인을 박해한 나치독일, 인종을 이유로 한 노르웨이 테러의 싹이 자랄 수 있다.

#### 5. 새로운 갈등원인에 대한 체계적 관리

국제교류의 증가에 따라 결혼이민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제 한국도 단일민족국가에서 다문화, 다민족 구성국가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갈등요소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론 울프의 등장과 이들이 자행하는 테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국내에서의 테러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

자의 체계적 관리와 함께 차별 등을 막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 6. 자생테러에 대한 장기적 접근

한국사회는 필요성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의 증가와 더불어 국제결혼 등으로 급속하게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 다문화사회의 진전은 유럽의 추세와 비교해 볼 때 늦게 시작되었지만 한국의 다문화주의 정책을 바탕으로 다문화사회에 접어들었다. 따라서 한국사회는 다문화가정을 하나의 구성원으로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 국가적 차원에서 다문화사회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다. 다문화사회의 경우 다양한 문화와 언어적 차이로 인하여 테러 발생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다문화사회의 새로운 불안요소로 자리잡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안에는 대한민국 내에서 다문화사회 구성원에 의해 발생하는 테러행위도 포함 된다고 할 것이다.

테러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테러의 예방에 있어서 최선의 방법은 테러의 발생 원인으로 작용하는 환경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테러환경 자체를 제거하는 것은 장기적인 정책적 접근을 요구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새로운 테러 환경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테러환경 변화에 대한 냉정한 검토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한국 사회가 이런 노력을 기울인다면 국내의 테러 환경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비용도 커질 수밖에 없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VI. 결 론

국제사회는 연일 계속되는 테러에 몸살을 앓고 있다. 테러의 안전지대는 없으며, 테러범에게는 은퇴도 없다. 상대적으로 안전지대였던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테러도 이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동안 해외에서 한국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집중되었다. 국내의 테러 환경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국내도

테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특히 전통적으로 존재해왔던 북한의 대남 테러위협뿐만 아니라 국제화의 진전에 따른 새로운 테러주체의 등장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테러환경에 대한 변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제교류의 증가에 따라 결혼이민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다문화, 다민족 구성국가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갈등요소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테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 스페인, 영국 등 유럽의 테러 환경과는 상이한 점들이 많아 다문화, 다민족 국가로의 전환과정에서 내부적인 갈등이 국내 테러의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민자의 천국이라고 불리던 프랑스에서 2005년에 발생한 대규모 소요사태는 테러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을 음미해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2005년 10월 27일 파리근교에서 무슬림 계 10대 소년 2명이 경찰의 검문을 피하려다 변압기에 감전사 한 후 숨진 것을 계기로 그동안 차별과 무시 속에 억눌려 왔던 이민자들의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하여 발생한 3주간의 대규모 소요로 차량 9천여 대가 불탔고, 시위 진압에 나선 경찰 126명이 다쳤으며, 3천여 명의 시위가담자가 체포됐다. 이 때문에 프랑스 정부가 비상사태법을 선포하여 본토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야간통행금지령이 내려지기도 했다(한겨레신문, 2005년 11월 11일). 그리고 2007년 11월에는 북부 빌리에 르벨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청소년 2명이 순찰차와 충돌한 뒤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이민자 소요사태가 재발한 바 있으며, 2009년 8월에도 피자를 배달하던 18세 소년이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 숨지면서 소요 사태로 번지기도 했다.

프랑스는 자유, 평등, 박애의 나라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왜 이런 대규모 사태가 발생한 것일까? 프랑스는 1960~70년대 저 출산으로 노동력이 감소하자 제국주의 시절 식민지였던 국가를 중심으로 이주 노동자를 대거 받아들이는 정책을 취했다. 매년 많은 수의 이민자가 유입되고 있지만 이들 이민자들의 실업률은 프랑스 실업률 평균의 3배가 넘는 30%에 달할 정도로 경제 및 사회적 차별을 받아왔다(연합뉴스, 2005년 11월 7일). 무슬림인 이민 2세대들은 학교를 졸업하고도 취업 등에서 노골적인 차별로 가난을 대물림되자 그 동안 쌓였던 좌절감과 분노가 한꺼번에 분출되었다는 지적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사실 프랑스 소요 사태는 프랑스만이 직면한 문제는 아니다. 유럽에는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유입된 이라파계 이민자들이 많다. 한 해에 유럽에 유입되는 합법

이민자는 약 130만 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많은 700만 명이상이 불법 이민을 시도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럽 각국에 살고 있는 무슬림 이민자들은 약 2,500만 명 정도인데 사태가 발생한 프랑스의 경우 약 500만 명이 살고 있으며 영국은 약 200만 명, 독일은 약 300만 명, 네덜란드 약 1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차별에 따라 좌절하면서 조직적으로 대항하는 세력들이 늘어나면서, 테러의 한 원인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2008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1,158,866 명으로 인구대비(49,540,367 명) 2.34%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 외국인 노동자 수는 548,553이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9: 273-277).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멸시와 차별문제가 지속된다면 프랑스의 소요사태, 스페인 열차테러, 영국지하철테러 같은 테러 발생의 원인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영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에서 9.11 테러, 대테러 전쟁, 그리고 계속되는 테러를 경험하면서 국내법 등 제도를 정비하고 대테러 국제공조를 강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는 테러에 대처함에 있어서 물리적 강제력, 법과 제도만으로 테러를 예방, 저지, 차단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김열수, 2002: 94-96).

외국인 국내 체류자가 증가하고, 매년 10쌍 중 1쌍 이상이 국제결혼을 함으로서 결혼 이민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2010년에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수가 1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북한을 탈출하여 국내에 정착한 우리 동포들이 1만 5천명을 넘어서고 있다. 한국도 이제는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스페인과 영국의 테러는 다문화 사회의 갈등과 차별이 원인되었다. 테러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테러의 예방에 있어서 최선의 방법은 테러 발생 원인과 환경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다. 다문화 사회 시대에 있어서 테러의 원인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정부는 물론 국민들도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한국 사회가 이런 노력을 기울리 한다면 국내의 테러 환경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비용도 커질 수밖에 없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강휘원(2006). 한국 다문화사회의 형성 요인과 통합 정책. **국가정책연구**, 20(2), 5-34.
-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2007). 2006 국제테러정세. 서울: 테러정보통합센터.
-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2009). 2008 국제테러정세. 서울: 테러정보통합센터.
- 김순석(2010). 다문화주의에 따른 자생테러리즘의 가능성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3, 1-19.
- 김열수(2002). 테러리즘 근절이 어려운 이유: 제도화의 한계와 국제사회의 균열. **국가전략**, 8(3), 79-108
- 김열수(2007). 한국에서의 새로운 테러주체의 등장 가능성. **한국위기관리논집**, 3(1), 1-12.
- 김윤규(2005).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가 겪는 폭력극복을 위한 대책.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7, 243-269.
- 김태복·신상민(2011). 한국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범죄 대응방안. **한국치안행정논집**, 7(4), 247-270.
- 박기덕(2012). **한국 다문화사회회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 성남: 세종연구소.
- 박준석(2008). 테러대응을 위한 국가기관의 과제와 전망.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7, 157-172.
- 박철현(2010). 국내 자생테러 발생 가능성에 대한 연구: 이슬람 자생테러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1(4), 61-90.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1). 2010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서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서범석(2010). **다문화교육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탐색**.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설동훈(2001).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인권 실태와 대책. **인권과 평화**, 2(1), 53-87.
- 설동훈(2002).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신승균(2012). 한국의 철도테러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8(1), 140-154.
- 양무목(2004).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연구. **통일논총**, 3, 11-42.
- 윤태영(2011). 핵테러리즘과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I) : 위협, 대응 및 한국에 대한 함의.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6, 29-58.
- 이경희·배성우(2006). 북한이탈주민 남한사회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통일정책연구**, 15(2), 1-28.
- 이윤규 외(2007).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대테러 작전 발전방안**. 서울: 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 장석현·이대성(2011). 한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테러리즘의 분석과 시사점 : 해외진출기업을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8, 153-179.
- 최진태(2006). *테러리즘의 이론과 실제*. 서울: 대영문화사.
- 홍순남(2006). 3.11마드리드테러와 7.7런던테러의 비교분석. *대테러연구논총*, 3, 127-177.
- 홍원표(2006).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변화와 과제. *민족연구*, 28, 87-127.

## 2. 국외문헌

- HM Government, Prevent Strategy (2011). *Presented to Parliament by the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by Command of Her Majesty*.
- Ted R. Gurr (1970). *Why men Rebel?*,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3. 기타

- 동아일보. 2007년 11월 1일.
- 문화일보. 2006년 7월 7일.
- 연합뉴스. 2005년 7월 7일.
- 조선일보. 2006년 12월 12일.
-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http://www.immigration.go.kr))
- 탈북자 동지회 홈페이지([www.nkd.or.kr](http://www.nkd.or.kr))
- 통계청 홈페이지([www.kostat.go.kr](http://www.kostat.go.kr))
- 한계레신문. 2005년 9월 2일.
- 한국테러리즘연구소 홈페이지([www.terrorism.or.kr](http://www.terrorism.or.kr))
- CNN 한글뉴스. 2007년 11월 8일.
- ABC News, "Alleged 'Lone Wolf' Arrested in New York on Terror Charges", 20 November 2011 (<http://abcnews.go.com/Blotter/alleged-lone-wolf-jose-pimentel-arrested-york-terror/story?id=14994845>, 검색일: 2011년 11월 22일)
- Reuters, "Obama says "lone wolf terrorist" biggest U.S. threat", Reuters, 16 August, 2011 (<http://www.reuters.com/article/2011/08/16/us-usa-obama-security-idUSTRE77F6X120110816>, 검색일: 2011년 11월 22일)

**【Abstract】**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Homegrown  
Terrorism in Korea Depending on  
Internalization and Strategy to Cope with the  
Terrorism**

Yu, Hyung-Chang

Terrorist organization has shown the trend of secret organization and it is harder to cope with terrorism because of uncertainty of terrorism. Homegrown terrorism is the one, whose preparation, execution and effect are restricted to domestic area. By the way, in the worldwide economic depression, violence and radical demonstration have shown the expansion trends as in Middle East, political revolution of Africa, anti-social resistance of Europe and Wall Street Occupation of USA. Homegrown terrorism is occurring in various countries such as UK and Spain as well as USA. Specialists warn homegrown terrorism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spect the possibility of homegrown terrorism that can be generated in the transfer to multi-culture society as various foreigners come to Korea rapidly and suggest the method to cope with the trend. The study analyzed environment and analysis of homegrown terrorism that Korea faces now.

The methods to cope with homegrown terrorism are as follows.

First, distribution of radical homegrown terrorism via internet should be prevented.

Second, the connection between terrorist organization and homegrown terrorist should be prevented.

Third, there should be a cooperation among government, residents and religious group.

Fourth, there should be an open approach against multi-culture society.

Fifth, there should be a systematic control for cause of new conflict.

Finally, there should be a long-term approach to cause of new conflict.

If we do not make an effort to prevent homegrown terrorism, terrorism environment may face new aspect and national and social cost for it will increase.

**Key words :** Homegrown terrorism, Terrorism, Internationalization,  
Multi-culture, Uncertainty